



영산강 자전거길에 활짝 핀 해바라기 2만송이

11일 오후 영산강 자전거길 동강구간 꽃길 10km에 활짝 핀 2만송이의 해바라기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 구간은 나주시 동강면이 올해 지역공공체 일자리 사업으로 꽃길을 조성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부지정비, 파종, 김매기, 비료주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1일 오후 영산강 자전거길 동강구간 꽃길 10km에 활짝 핀 2만송이의 해바라기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 구간은 나주시 동강면이 올해 지역공공체 일자리 사업으로 꽃길을 조성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부지정비, 파종, 김매기, 비료주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무안~中 심양 하늘길 주 3회 열린다

〈월·수·금〉

전남도·광주시 오늘 무안 공항서 전세기 첫 취항 행사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도 개설... 중 관광객 유치 파란불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중국 하늘길이 점차 늘고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도 개설돼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2일 오전 무안 공항에서 중국 심양청년여행사, 한국공항공사와 세관, 출입국관리·검역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안~심양 간 주

3회(월·수·금) 운항하는 정기성 인바운드(외국순님을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 전세기 첫 취항 환영행사를 연다.

도와 시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 결과 지난 3월 31일부터 매일 무안~전진 간 정기성 전세기를 유치해 6월 말까지 2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여수박람회 개최로 관광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순천만정원박람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형행사가 줄줄이 개최되거나 예정돼 중국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여세를 몰아 심양 전세기 상품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 관광 광주·전남의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도 정식 설치돼 국내 어느 공항으로 입국하든 무안공항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고 곧바로 무안공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돼 공항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무안~심양 간 전세기 취항과 무안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해외에서 광주·전남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복더위 보양식 으뜸

완도 전복

전국 20개 매장서 특판행사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복’(사진)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닭이나 장어 등 각종 보양 음식에 전복을 첨가하거나 전복만으로 요리한 음식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복 판매량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완도군은 11일 “복날을 겨냥해 더위 물리치기 이벤트인 ‘전복 데이’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비롯한 전국 20여 개 판매장에서 초복, 중복, 말복을 기준으로 전후 하루씩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복데이 행사는 전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복날을 겨냥한 전복마켓팅 이벤트로, 소비자들이 각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전복삼계탕, 전복영양죽 등 다양한 전복 요리 레시피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kg당 6~7미부터 25미까지 전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복 시식과 함께 선착순 구매 고객들에게 홍보용 완도 샘플 쌀을 무료로 증정

하기로 했다.

특히 전복삼계탕, 전복 갈비찜용으로 가장 적합한 kg당 15~20미를 특별할인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무공해 웰빙 식품으로 우리나라 동해안과 중국 본초강역에 피부미용,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어지느러미, 해삼과 함께 ‘바다의 삼보(三寶)’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은 대형 백화점과 마트에서 계절별, 특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완도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1등급 비율 전국 최고

장흥 한우

75.9%... 고급육 생산 결실

장흥군은 11일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장흥이 한우(사진) 다두사육 지자체 중에서 상반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5.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한우 5만6000여두를 사육하면서 전국에서 5번째로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군으로 분석됐으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남 평균 63.1%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전국 60.3% 역시 크게 앞섰다.

또 1+등급이 28.8%, 1+등급도 16.4%로 단연 1위를 차지, 지난해 말 기준 72%에 비해서도 4% 가량 상승했다. 장흥군은 지금까지 한우육생 조례



를 제정해 한우산업을 활성화시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정란 이식 연구사업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틀을 마련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542

곳의 축산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지난 2006년부터 정남진 장흥도요시장과 연계한 한우 특구로 지정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주 주기적으로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를 실시해 판매점 이용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고급육 생산 결실의 주역은 일차적으로 양축농가도 생산자가 열심히 키워준 덕분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남진 장흥 한우 브랜드 명성에 걸 맞는 시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백수해안도로에

높이 16m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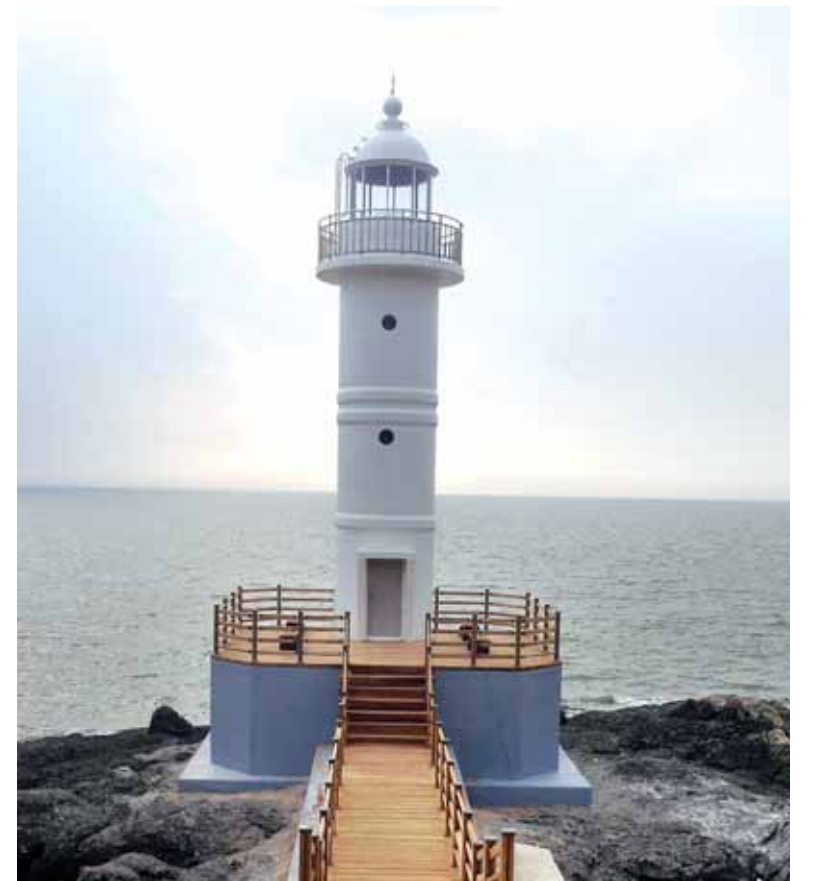
범성포항 등 선박 안전 지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영광 범성포항과 계마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백수해안도로에 백수해안도로 인접 암초에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등대를 설치했다. (사진) 이번에 설치한 대신등대는 높이 16m, 직경 2.5m의 백색 원형등대로, 22km 밖까지 불빛을 비출 수 있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 등대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의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해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방문객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등대 주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설치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새 얼굴

“인권 우선, 민생치안에 힘쓸 것”

박병동 장흥경찰서장



“지역주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병동(57) 신임 장흥경찰서장은 11일 “장흥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역실정인 점을 감안 사회적 약자 특히,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치안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서장은 그동안 경찰사회에 뿌리 깊히 잔존된 권위주의식을 탈

피시켜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찰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 출신인 박 서장은 특차수사간부 2기 출신으로 인천공항경찰대장, 화순·서울 성동·김포·나주서장과 지방청 경무과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유경숙 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kson@